

“국내 원전 안전 원점서 재검토”

정부, 석유비축기지 등 긴급 점검... 곡물·LNG 수급 차질 대비

일본의 대지진 참사 이후 원자력 발전소 폭발이 이어지는 등 피해가 확산하면서 우리 정부도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일본 대지진에 따라 이번 주 국내 원자력발전소와 석유비축기지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벌이고 필요 시 보완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원전 안전에 대해 원점부터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곡물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원자재 수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키로 했다. 일본인 관광객 감소로 국내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특별 행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안현호 지식경제부 제1차관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일본 지진피해 대책특위 회의에 참석, “일본 원전 사고의 교훈은 우리가 항상 대비하는 것 이상의 자연재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분석이 나오면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 부처와 원전 안전에 대해 원점부터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진 사태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지진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원전가동에 문제가 생기면 LNG 수요가 늘어날 것인 만큼 LNG 가격 상승에 대비해야 하고 유엔탄 가격 상승도 대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은 “기류가 우리나라와 방향이 같고 후쿠시마 2호기의 격납 용기가 완전 폭발하

는 등 최악의 사태가 발생해도 일반인의 연간 피폭량은 허용치의 15.8% 수준으로 우리는 매우 안전하다”며 “다만, 환경방사능감시망의 감시주기를 15분에서 5분으로 단축 운영하고 국방부에 항공기 공중탑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일본 대지진의 경제적 영향 및 대응”을 보고했다. 임종룡 재정부 1차관은 이날 보고에서 “누출된 방사능이 확산할 경우에 대비해 우리 주변지역의 기류와 기상정보 분석을 강

화할 것”이라며 “도로·철도·병원·학교 등 주요 내진 대상 시설물의 안전 점검과 개선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LNG·유연탄 등 원자재와 발전 5개사 등에 비상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수급 상황과 국제가격 동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대일(對日) 부품·소재 수급 실태 조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물량 확보를 돕기로 했다.

임 차관은 대지진의 국내 영향에 대해 “현재로서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으로 보이나 일본 경제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국내 경기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대일 수입 비중이 큰 명품·갈치 등 일부 수산물도 단기적 수급차질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의 농수산물 수출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관광업 등 서비스업에도 피해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희생자 시신 수습

일본 동북지방에 진도 9의 강진이 발생하자 나흘이 지난 15일 오전 119중양구조단원들이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피해지역인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시 미야기노구 가모지구에 시 실종자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적, 日적십자사에 100만달러 지원

삼성, 1억엔 기부·구조대·의료단 파견 한인사회·재일동포 유학생도 모금운동

일본 동북부를 강타한 대지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과 지원활동이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유종하)는 15일 일본 대지진 이재민 구호를 위해 일본적십자사에 미화 100만달러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적은 이날 중 1차로 100만달러를 일본적십

자사에 전달하고 추후 성금이 모이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삼성그룹은 이날 피해 복구 성금으로 1억엔을 일본삼성을 통해 기부하는 한편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담요, 내의 등 보온용품과 세면도구 등 생활용품이 포함된 구호 세트 2000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자체 운영하는 인명구조단인 3119구조대 대원 10명과 삼성의료원의 의료진을 위주로 한 의료봉사단 11명을 일본 정부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피해 지역에 파견할 방침이다.

미국과 중국, 유럽 한인사회도 재일동포들을 비롯한 이재민을 돕기 위한 돈을 돕기 위한 긴급 모금에 나선다. 중앙인민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은 15일 “미주총련 본부를 중심으로 모금을 시작하고, 각지 사업체를 운영하는 재미 동포들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에서 유학중인 재일동포 대학생들도 서울의 각 대학에서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나섰다. ‘재일한국인 수학생회’ 이형택(24·한양대) 회장은 15일 “어제 연세대에서 모금활동을 펼쳐 167만원을 모았다”며 “오늘부터는 서울 소재 대학의 재일동포 유학생들이 중심이 돼 본격적으로 성금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비영리공익재단 아름다운 가게도 대지진 사태로 피해를 본 일본 이재민을 돕기 위한 긴급 모금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아름다운 가게는 전국 매장 수익금으로 마련한 1만달러를 일본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권익기자 cki@연합뉴스

여야 지도부, 재보선 격전지 강원 격돌

박근혜 “평창올림픽 유치 위해 최선” 손학규, 영동권 순회 민주 바람들이

4·27 재보선의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강원도지사 보궐선거를 놓고 여야 지도부가 총력전을 펼치면서 선거 분위기가 급속도로 달아오르고 있다.

여야 모두 당내 경선을 앞두고 흥행몰이에 나설 방침이어서 ‘인물론 및 지역발전론’을 내세운 한나라당과 ‘정권심판론 및 이광재 동정론’에 기대민 민주당의 격돌이 예상된다.

전날 춘천을 찾았던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 이날 오전 화천으로 자리를 옮겨 1박2일 강원 방문 일정에서 이었다. 안 대표는 오후에는 춘천에

서 열리는 당 평창동계올림픽유치특위 발대식에도 참석한다.

특히 이날 발대식에는 박근혜, 정몽준 전 대표와 김형오 전 국회의장, 특위 위원장인 김진선 전 강원지사, 황영철 강원도당위원장, 각 예비 후보자 등 1500명이 참석했다.

이날 박 전 대표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 “강원도의 꿈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그 꿈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한나라당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1박2일 일정으로 강원을 방문, 고성과 강릉 등 영동권 순회에 나섰다. 손 대표는 고성 통일전망대를 찾아 현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가 남북 간의 긴장 고조와 지역경제 위기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면서 남북대화 재개를 정부 측에 촉구했다.

또한, 당론으로 발의한 점경지역지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강조하면서 민주당 지지를 당부했다.

손 대표는 오는 17일 1박2일 일정으로 원주를 다시 방문하고 18일 현지에서 최고위원회를 여는 등 강원지사 보선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박근혜 바람’ 차단 등을 위해 여당에 앞서 이날 말에 후보를 조기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상률·에리카 김 수사 면죄부 안돼”

박지원, ‘권력형 게이트’ 국조·특검 준비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5일 한상률 전 국제청장과 에리카 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민주당은 ‘권력형 게이트’에 대해 반드시 국정조사와 특검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은 일본 대지진을 핑계로 권력형 게이트를 묻어낸 해산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열려했던 대로

일본 지진 여파로 한상률 전 국제청장, 에리카 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꼬리 자르기’식 면죄부 수사로 마무리 될 것”이라며 “특히 (검찰이) 한 전 청장에 대해서도 계파주의적 하지 않는 등 과연 납득할 수 있는 수사인지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얼치기 수사로 진실을 묻어낸 지진의 여파로 땅 속으로 묻혀들어갈 것 같지만 언젠가

또 지진은 폭발한다”며 “일련의 수사도 구체적처럼 임시방편으로 파묻혔다가도 해빙이 되면 터져나오듯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한국-UAE(아랍에미리트)간 유전개발 참여 MOU(양해각서) 체결과 관련, “원유 개발 MOU 체결 과정이 원전 수출과 닮은 꼴이 돼가고 있는데, 이런 계약이 드러난 원전 수출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며 “본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치적 홍보에만 급급하다면 국민은 다시 한번 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노무현재단 광주위원회’ 오늘 창립

법선·정찬용 공동대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기 위한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가 16일 오후 6시30분 광주 5·18 기념관에서 창립대회를 갖는다.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는 지난해 창립된 부산에 이어 지역에서는 두번째로, 지난 2002년 3월16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 광주 경선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이날 창립대회를 갖는다.

광주지역위원회 공동대표는 법선 문민정사 주지 스님,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광주 경선 당시 노무현 후보를 도왔던 김정현씨 등이 맡기로 했으며, 법선 스님은 상임대표를 겸하기로 했다.

운영위원장은 광주 노사모 활동을 하는 이오석씨가 맡는다. 사무실은 동구 장동 노사모 사무실을 임시 사용하기로 했다.

광주지역위원회는 초창기연회와 토론회, 공원 조성 등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기 위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에 산행했던 무등산 등산로를 ‘노무현 대통령길’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대석 전 청와대 비서관은 15일 “노 전 대통령이 품주셨던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 노 전 대통령의 철학과 삶을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익기자 cki@연합뉴스

전월세 담합금지법 발의 강기정 의원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15일 중개업자들의 공동주택 가격 또는 전·월세 담합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중개업자들의 공동주택 가격 및 전·월세 담합 행위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벌칙을 부과하며 ▲이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는 자에게 포상금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가격과 전·월세 담합행위가 전·월세값 폭등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이 불분명하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전·월세값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청소 및 건축물 종합 관리

저희 (주)대진용역은 항상 고객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 업체만의 체계적인 업무처리 시스템과 각 서비스별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모든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원하신다면 (주)대진용역의 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주)대진용역의 서비스 —

- 청소용역: 입주청소, 준공청소, 상주청소
- 소독용역: 소독 및 바퀴벌레·개미·해충 박멸
- 경비용역: 시설경비, 경호업무
- 심부름: 잔심부름, 개인업무
- 대리운전: 장거리 운행 및 일, 월 대리운전

(주)대진용역
TEL 062)372-2332, 371-6644 FAX 062)376-8949

경비원 및 청소원, 운전기사 모집 및 알선 해 드립니다.
모집인원 : 경비인원 00명, 청소인원 00명, 운전기사 00명

부실채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중·판결문·각종못받은돈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새한신용정보(주)
062)232-7770, 010-4608-6061
(담당 : 김정수)

식당용 중고품

- 매매전문 -

업소용품 주방용품

광주·전남·북 전지역 출장하영

타 업체보다 더 드립니다!!

백두산 중고매장
직통 011-9430-1698

본점 062) 521-6677
북구점 062) 524-3377
첨단점 062) 945-8778

2011년 2월 4일 SBS 주관 전국동안대회 대상

2011년 2월 24일 SBS 좋은아침 방송 이계남 신비 건강 재활원

심근경색 · 파킨슨병 잠수병 · 혈관질환 · 허약체질

약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운동요법만으로 본인도 놀랄만큼 단 시일내 치유됨!!

062)951-5511 · 016-9578-7777